

흡착의 개념

상악 총의치 흡착 + 하악 총의치 흡착 + 적절한 교합 = 총의치 치료 성공

정밀 인상 시에 하악 인상체를 구강 내에서 떼어 내려고 할 때, 시술자가 강한 음압을 느끼고 ‘찰칵’ 또는 ‘퐁’ 소리가 나게 되면 그 인상은 성공했다고 느낄 것이다. 이 체험을 하고 난 후에는 다시는 기존의 인상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

1

Q	01
흡착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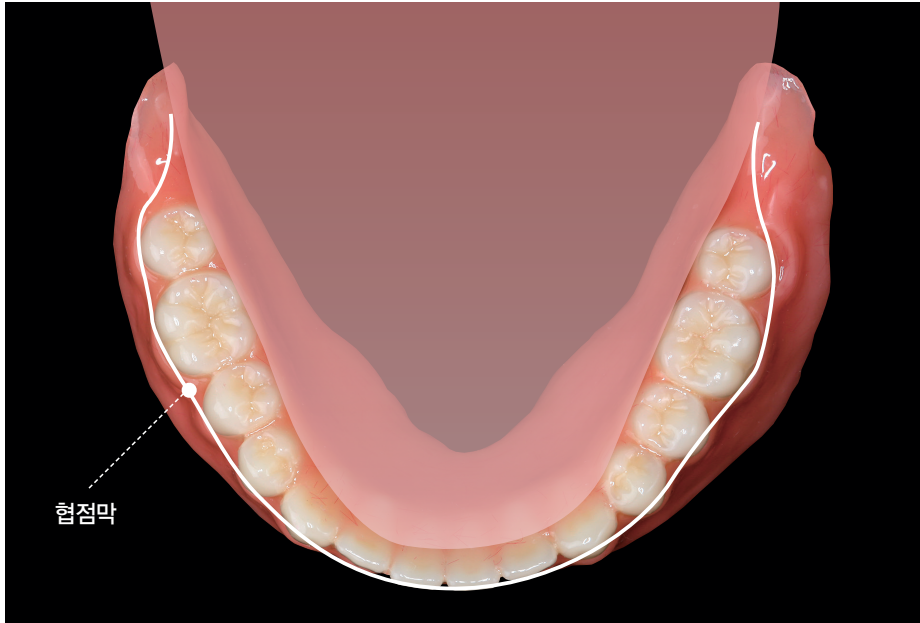
흡착 의치의 기본 콘셉트에 대해 알려 주세요.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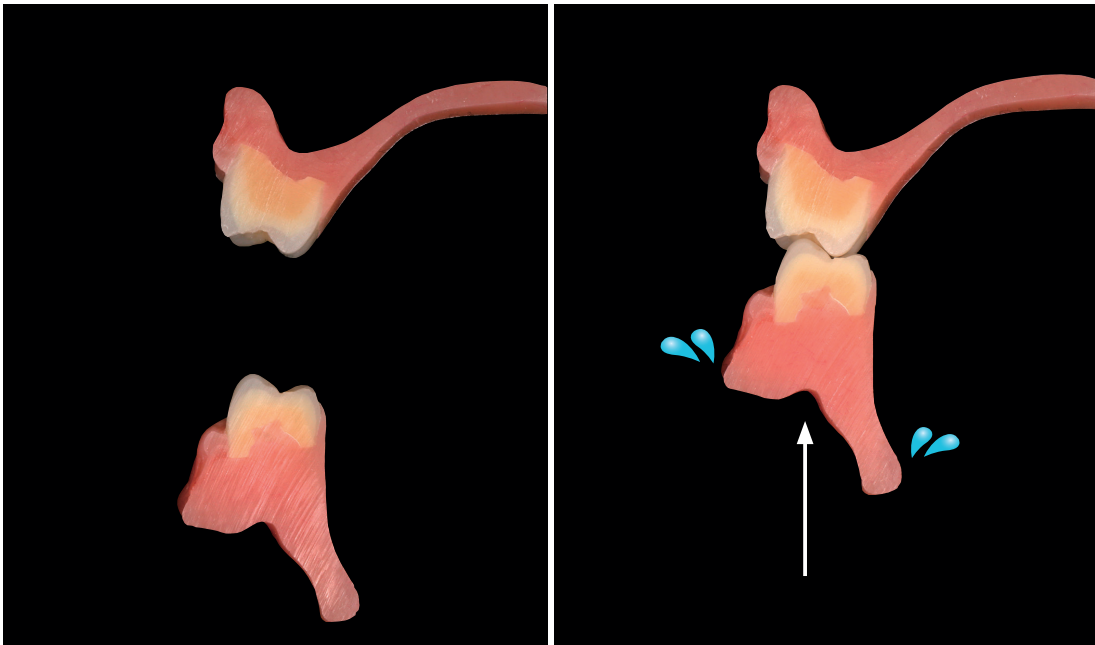
치조제 점막과 닮은꼴인 의치 점막면을 정위치로 밀어서 붙이면 밀착이 일어나고, 이 상태에서 의치 변연 전체에 점막에 의한 변연 봉쇄가 이루어지면 흡착이 일어납니다. 빨판과 같은 원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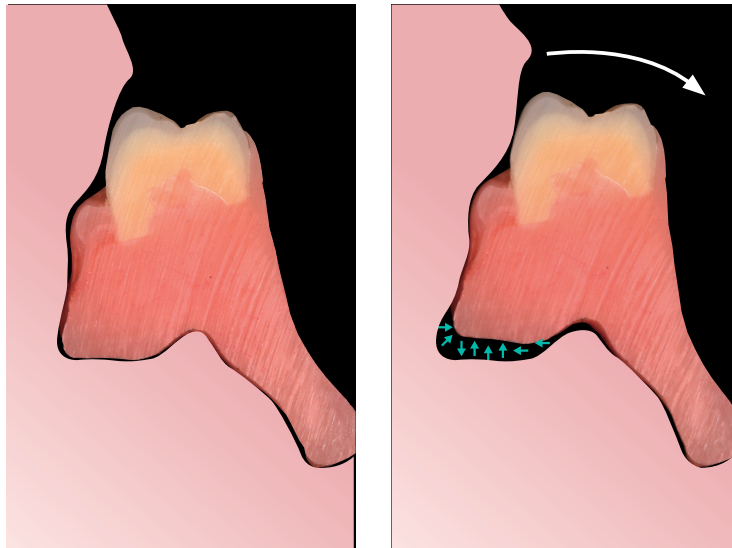
- 예비 인상
- 정밀 인상
- 교합
- 전치부 인공치의 선택과 배열
- 구치부 인공치 배열
- 의치 형태
- 가공
- 난중례
- 조정·유지관리
- 기타



입을 다문 안정된 상태에서 하악 총의치의 전체 둘레를 구강점막으로 변연 봉쇄된 상태로 만든다.



보통 타액이 더 끼여 있는 하악 총의치가 치조제 위에 올려져 있다. 교합 또는 연하함으로써 타액이나 물 등의 액체·기체 등이 의치상 내면에서 배출되어 밀착이 일어난다.



음식물 덩어리나 설압 등에 의해 의치를 분리시키는 힘이 작용하게 되면, 의치상 내면에 음압이 발생하여 흡착이 일어난다.



입을 다물 때 구강점막 형태와 입을 벌릴 때 그 형태가 크게 변화가 없는 한 입을 다문 상태에서 한번 흡착시키면 입을 벌리더라도 빠지지 않는다. 빨판과 같다.



의치의 외형선과 개인 트레이 외형선의 개념을 알려 주세요.

A

의치 외형선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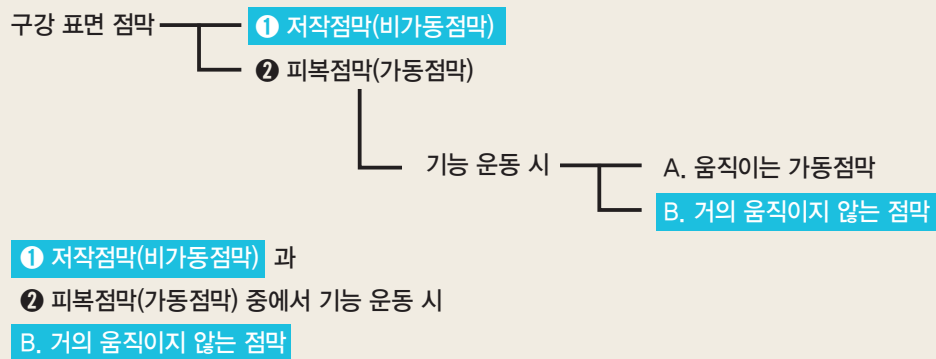
저작점막(비가동점막), 그리고 피복점막(가동점막) 중에서 기능 운동 시에 연동하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점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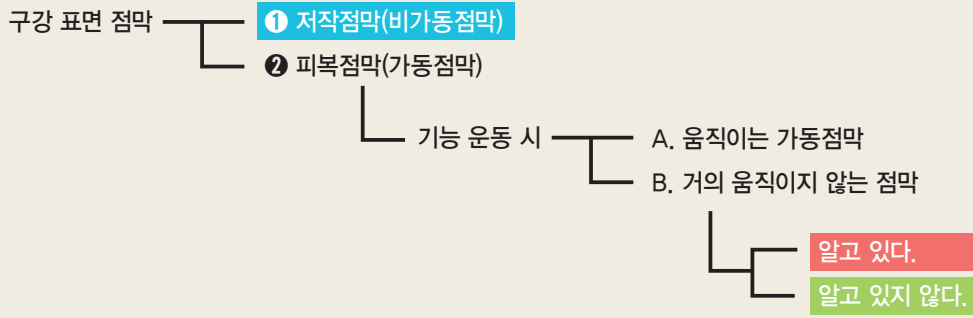
개인 트레이 외형선의 개념

저작점막(비가동점막), 그리고 피복점막(가동점막) 중에서 기능 운동 시에 연동하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점막들 중에서 이미 거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부분

정밀 인상 콘셉트

의치 외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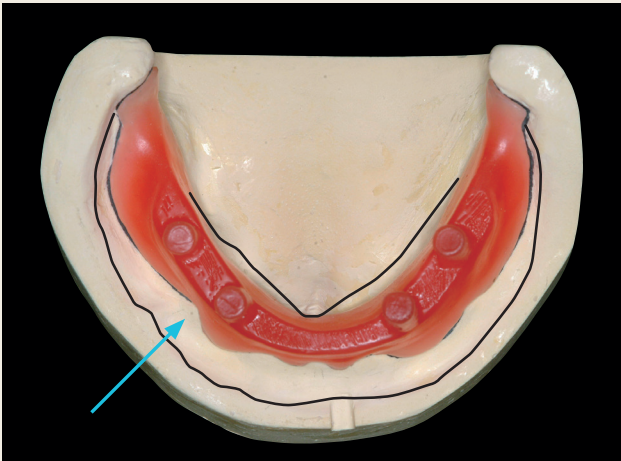


개인 트레이 외형선



① 저작점막(비가동점막) 과
 ② 피복점막(가동점막) 중에서 기능 운동 시
 B. 이미 거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부분

예비 인상 외형선과 개인 트레이 외형선의 공간



이 공간은 ② 피복점막(가동점막) 중에서 기능 운동 시 움직임이 있는지, 거의 움직이지 않는지 알 수 없는 부분. 환자 구강 내에 인상 재료를 넣어 기능 운동을 해본 후 판단을 한다.



흡착 시 머리 위치는 관계가 있나요?

A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연스러운 머리 위치에서 식사를 할 때의 머리 위치인 약간 고개를 숙인 상태로 흡착 검사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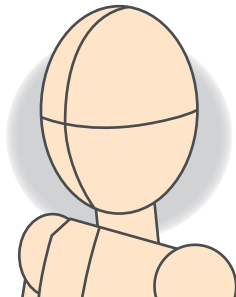
머리를 든 상태로는 흡착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흡착 검사 시의 머리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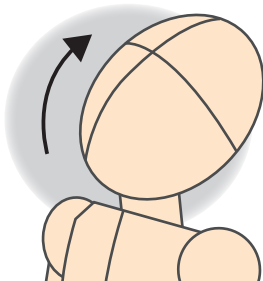
자연스러운 머리 위치에서 약간 고개를 숙인 상태로 하악 총의치 흡착 검사를 한다. 머리를 들면 들수록 혀와 설하주름부는 후퇴하게 되고, 혀와 협점막 사이가 벌어지게 된다. 그것과 동조하여 변연 봉쇄가 어렵게 되므로 흡착이 잘 되지 않는다. 반대로 점점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는 혀와 설하주름부가 전방으로 이동하고, 혀의 측면과 볼 사이가 가까워져 점막에 의한 봉쇄 면적이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해 변연 봉쇄가 견고해지고 흡착력이 좋아진다.

흡착이 가장 필요한 식사와 대화 시에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머리 위치에서 그것보다 약간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흡착이 잘 되어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자연스러운 머리 위치~식사 등을 하는 머리 위치



고개를 든 상태의 머리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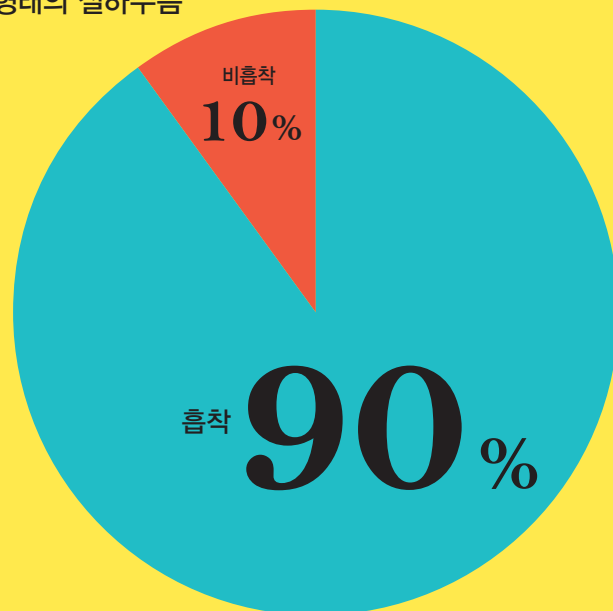
Q	04
흡착의 개념	

모든 증례에 대해서 흡착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전체 증례 중에서 약 90%의 흡착률입니다. 아래의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흡착이 어려워집니다.

- ① 요철이 없는 평평한 치조제 형태
- ② 후악설골와에 의치상 연장이 불가능
- ③ 부드럽게 변형되는 retromolar pad
- ④ 큰북의 복면과 같이 늘어짐이 없는 가죽 형태의 설하주름
- ⑤ 교합 불안정
- ⑥ 구강건조증(dry mouth)
- ⑦ 구순 운동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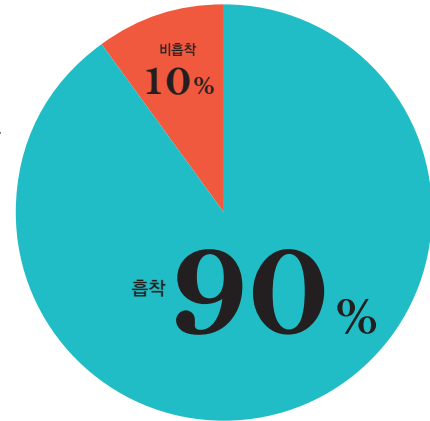


흡착되지 않는 구강 내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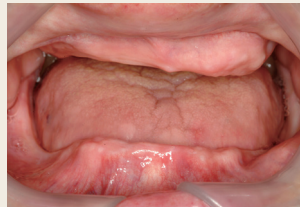
아래의 구강 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흡착되기 어렵다.

① 요철이 없는 평평한 치조제 형태

정위치에 의치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가이드가 되는 치조제의 요철이 필요하다. 정위치에 의치를 장착하지 못하면 밀착되지 못하고, 밀착이 안 되면 흡착은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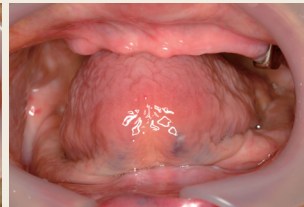
전치부·구치부 치조제에
볼록이 있다.



전치부 치조제에
볼록이 있다.



부분적으로 치조제에
볼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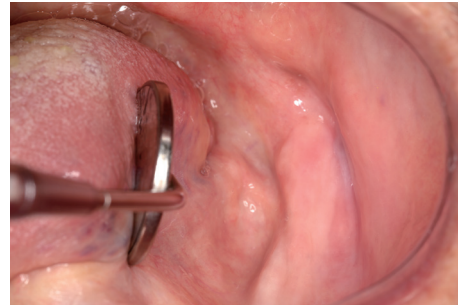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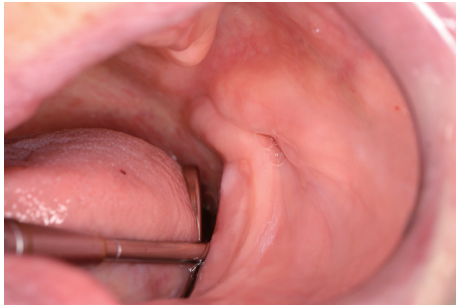


전치부·구치부 치조제에
볼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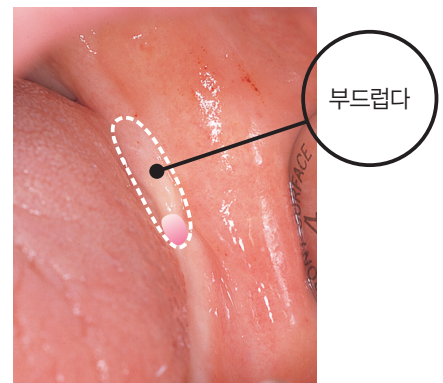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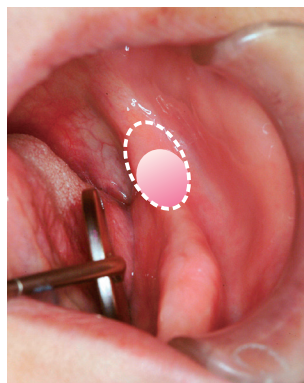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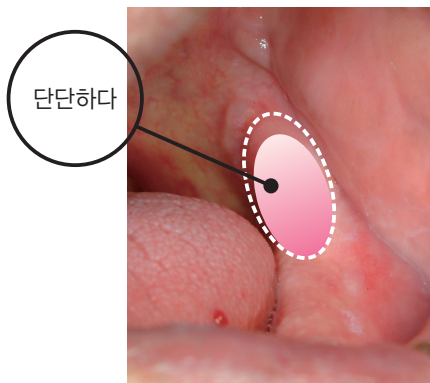
② 후악설골와에 의치상 연장이 불가능

의치상은 악설골근선을 넘어 후악설골와로 2~3mm 연장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혀의 압력에 의해 의치가 움직이기 쉬워지고, 혀의 측면이 설측 연마면을 밀어서 누르는 봉쇄 기능 구조가 작동하기 어려워진다. 뚜렷한 흡수로 인해 치조제가 평평해지면 후악설골와로 연장한 의치상만으로 의치의 좌우 수평방향의 움직임에 대응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③ 부드럽게 변형되는 retromolar pad

Retromolar pad의 앞쪽은 섬유성 조직이 풍부하고 단단하며, 뒤쪽은 선조직이 풍부하고 부드럽다. 단단한 retromolar pad가 흡수되어 부드러운 retromolar pad가 대부분으로 남게 되면 입을 벌리고 다물 때 retromolar pad의 변형이 크기 때문에 의치상에 의한 봉쇄가 어렵게 된다. 게다가 교합하게 되면 의치가 흡수한 retromolar pad 방향으로 움직이기 쉬워진다.



④ 큰북의 복면과 같이 늘어짐이 없는 가죽 형태의 설하주름

혀가 크게 후퇴하고 설하주름이 뒤쪽으로 당겨져 소실되어 구강저가 평평하고 큰북의 복면 가죽과 같이 늘어짐이 없는 상태처럼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봉쇄하기 어려워진다.



⑤ 교합 불안정

교합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의치를 정위치에 장착할 수 없어 밀착과 흡착이 되지 않는다.

⑥ 구강건조증(dry mouth)

타액의 양이 적으면 의치가 움직일 때 통증을 유발하여 흡착 이전의 문제가 된다.

⑦ 구순 운동 장애

구강 내의 불수의운동에 의한 의치가 이동하는 증례가 있다.

